

민주 김한길號 ‘고강도 혁신’ 가능할까

조만간 혁신위 구성... 당 쇄신 작업 본격화

당직 인사부터 ‘대통령’ 첫 단추 끼울지 관심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과연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에 성공할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등 돌린 민심을 다독이고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잠재워 제1야당의 위상을 본 계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고강도 혁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김 대표는 조만간 혁신위원회를 구성, 당 쇄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 등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 ▲정책당단 명도 강화 ▲외부 인사 발령 및 대 당평 인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혁신 작업의 1차 관문으로는 민주당의 고질병인 계파 갈등 해소로 꼽히고 있다. 당내 화합을 이루지 않고는 혁신 작업이 동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당직 인사가 김한길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전진배치로 혁신의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그가 친명한 대로 ‘대통령’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을 조기에 마

무리한 뒤 정당 개혁과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등 정치개혁 등 분야별 혁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오전 열린 새 지도부의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화두는 단연 ‘혁신’과 ‘계파청산’이었다. 이날 김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강조하며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가까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계파 청산과 화합,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계파 청산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대의명분과 옳음을 한꺼번에 갖추도록 범야권의 통합을 이뤄나가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계파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혁신의 출발은 대당평과 공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현장 중심의 당 운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친명한 당의 혁신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적극적인 당내 화합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류·비주류의 고질적 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

당장, 그동안 당을 주도해왔던 친노(친노무현) 진영 및 구주류가 김 대표의 혁신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책을 마련하는 한편,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합책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이날 비서실장

에 노웅래(서울 마포갑·재선) 의원을 선임했다. 또 정성호 수석대변인 후임에 김관영(44) 의원을, 김 현 대변인 후임에는 배재정(여·45)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유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도 ‘개혁’ 속도내나

대대적 당직개편 예고... 호남쪽 최고위원 유수택 거론

새누리당이 새롭게 출발한 민주당에 맞서 당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황우여 대표가 대대적인 당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고 6월 임시국회부터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1야당이 지도부 개편을 계기로 대대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추진할 경우를 대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6일 “나 자신이 태생부터 어느 계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당평 인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적임자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하겠다”

고 밝혔다. 그동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非朴, 비박근혜)간 암암리에 깔린 계파갈등을 청산하는 ‘화학적’ 결합을 모색, 당의 변모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당의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사무총장과 제1·2부총장에는 친박계와 비박 인사를 엮고려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2석에 호남, 강원 출신 인사를 한 명씩 배치, 지역 안배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호남 쪽 최고위원으로 유수택 광주시당위원장, 사무총장에는 홍문중 의원, 대변인에는 홍지만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원대대표 경선 15일 실시

‘신친박’ 이주형 ‘원조친박’ 최경환 ‘朴心대결’

새누리당도 오는 15일 오후 차기 원대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날 동시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현재 친박(친박근혜)계 이주형·최

경환 의원의 양자 구도로 짜진 상태다. 최 의원은 ‘원조 친박’, 이 의원은 ‘신(新) 친박’으로 각각 분류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4인의 송광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대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위원으로는 홍일표·김영우·이병수·김현숙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후보 3인

전대 여파 ‘셈법’ 각양각색

“호남대표” 김동철·우윤근 단일화에 난색... 전병헌 “능력·자질” 강조

민주당이 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대표 경선투스에 들어간 가운데 김한길 대표 체제를 선택한 5·4 정당대회 결과가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동철·우윤근·전병헌(가나다순) 의원. 이들은 친노(친노무현)와 호남인사의 퇴조로 평가받는 이번 정당대회 결과를 놓고 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당내 ‘쇄신모임’의 주축으로 그동안 친노·주류 측과 가장 거리를 뒀던 김동철 의원 측은 당의 세력교체

가 이뤄진 점에 고무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가 경선 유리리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변화를 요구하는 당시에 따라 누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범주류로 분류되는 우윤근 의원 측은 지도부에서 배제된 구주류의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 의원 측은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구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전대 결과로 유리리를 점할 수 없다”면서 “원만한 협상력과 투쟁력을 동시

에 갖춘 감정이 의원의 표심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호남 출신인 김동철(광주 광안갑)·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은 이번 지도부 경선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인사가 배제된 데 대해 ‘호남 원내대표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호남정치의 복원을 위해 원내대표만이라도 호남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두 의원 간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후보는 당장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이다. 때문에 두 후보가 각각 경선에 참여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소수 득표자가 다수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출신인 전병헌 의원은 전대에서 당원들이 지역보다 인물위주로 투표했다며 원내사령탑을 뽑는 경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직도 상당한 세력이 있는 ‘정세균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 전 의원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이 자리는 안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능력과 자질을 강조하면서 선명한 야당론으로 승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거쳐 15일 의원총회에서 임기 1년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호남쪽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

주승용·이윤석 고사 속 박혜자·장병완·김영록 물망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및 당직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이 배려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4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호남 주자들의 지도부 진입이 실패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당 내외에서는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 지역 국회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호남 민심의 반발을 사면서 김한길 대표 체제가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의 반발이 안풍

(안철수 바람)과 연계될 경우,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이 배려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 내외에서는 벌써부터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김한길 대표 측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주승용, 이윤석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팔척 뛰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주승용 의원과 나는 절대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명해도 거부할 것”이라며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 된 만큼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 진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혜자 의원 카드를 제시

하고 있다. 여성과 호남 지역 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다 박 의원이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중도 성향이라는 점에서 당내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최고위원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쪽 장병완, 전남의 김영록 의원 등도 당내 화합 등의 명분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이 배제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김 대표도 호남 배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광주·전남 정치권 인사의 지도부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 자유상환 /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